

보도자료

2024년 3월 25일 인천 2024-16호
이 자료는 3월 26(화)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단, 통신/방송/인터넷 매체는
3월 25일(월) 12:00부터 취급 가능

제목 : 2024년 1/4분기 중 인천경제 모니터링 결과 및 『지역경제
보고서(2024.3월호)』 발간

-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지역 내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2024년 1/4분기 중 인천지역 경기는 2023년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
 - 제조업 생산은 보합세를 보였으며 서비스업은 소폭 감소
 - 제조업은 기계·장비, 의약품, 석유화학·정제 등을 중심으로 보합세를 나타내었고, 서비스업은 숙박·음식점업 등이 감소
- 한편 한국은행(본부)은 15개 지역본부에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7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수록한 「지역경제보고서(2024.3월호)*」를 발간
 - *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 수록
 - 2024년 1/4분기 중 지역경제는 제조업 생산은 소폭 증가하고 서비스업이 보합세를 보이며 전분기 수준을 유지
 - 상기 보고서에는 현장리포트 “인천 인구 300만 돌파 및 행정체제 개편” 수록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 붙임: 1. 인천경제 모니터링 결과 1부.
2. 현장리포트(“인천 인구 300만 돌파 및 행정체제 개편”) 1부.

문의처: 인천본부 기획조사팀 김규식 과장, 이현규 과장, 홍창덕 조사역

Tel: 032-880-0032, 0047, 0034 Fax: 032-880-0048 E-mail: incheon@bok.or.kr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지역본부>인천본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인천경제 모니터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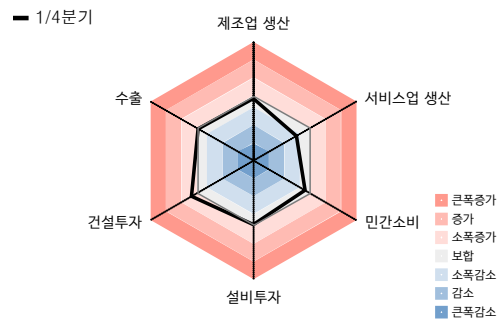
(1) 개황

인천지역 경기 보합

2024년 1/4분기 중 인천지역 경기는 2023년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제조업 생산은 보합세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소폭 하락하였다. 수요 동향을 보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보합세를 보였으나, 건설투자는 소폭 증가하고 수출은 하락세를 나타내었다.

1~2월 중 취업자수는 2023년 4/4분기보다 증가 폭이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상승세가 완화되었다. 주택매매가격은 하락세가 둔화되었으며 전세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경기 레이더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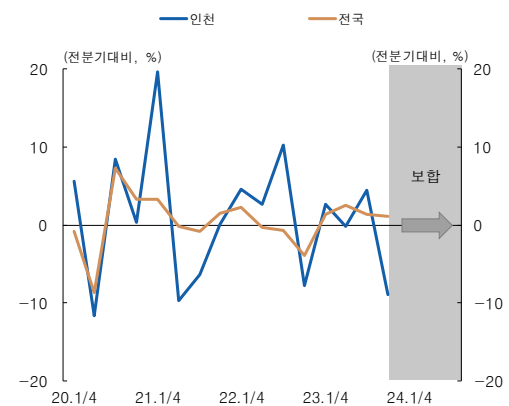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가한 것임

(2) 생산

제조업 생산 보합

1/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2023년 4/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과 식료품이 증가하고 자동차는 감소하였다. 기계·장비, 의약품, 석유화학·정제 등 나머지 업종들은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¹⁾²⁾



주: 1) 전분기대비 증감률은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자체추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 회복으로 인한 수주 증가 영향으로 증가하였다. 식료품은 명절선물 등의 수요 증가로 생산이 증가하였다. 자동차는 높은 생산수준을 보였던 지난해의 기저효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장비는 반도체 장비 및 난방기 수요 증가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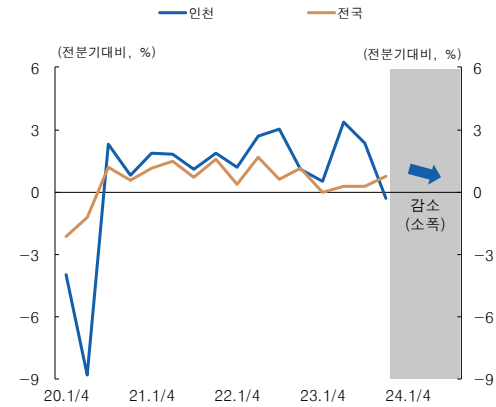
불구하고 건설 시장 침체로 건설 기계 수요가 감소하면서 보험세를 보였다. 의약품과 석유화학·정제는 높은 생산수준을 유지하면서 보험세를 나타내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제조업 생산은 1/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철강은 조선업 수주 호황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 침체 및 국내 공급사간 경쟁으로 인한 판매가 하락으로 보험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화학·정제는 해외 신규 수요에 따른 수급 개선 기대 등으로 생산을 유지함에 따라 보험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업 생산 소폭 감소

1/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2023년 4/4분기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 운수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소매업은 보험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¹⁾²⁾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기준
 2) 음영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자체추산

숙박·음식점업은 경기하강 및 경쟁 압력 증대로 매출이 감소하였다. 운수업은 해운 물동량¹⁾이 증가하였으나 항공 운항 편수 및 여객²⁾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소매업은 야외활동 증가 등으로 레저 상품 판매가 증가하였으나 경기둔화에 따른 일반 고객 매출 하락으로 보험세를 나타내었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서비스업 생산은 1/4분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숙박·음식점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도소매업이 전분기 수준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수업은 보험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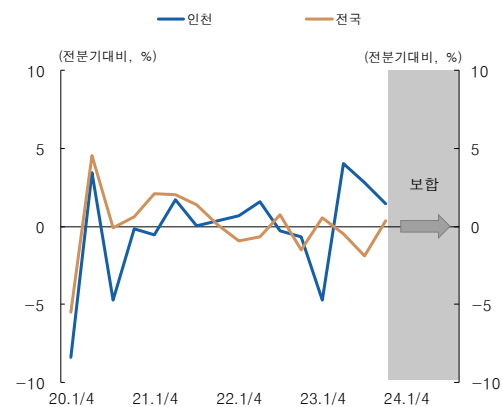
1) 2023년 4/4분기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동기대비 8.7% 증가한 1,428만톤이었으며, 비컨테이너 물동량은 4.0% 증가한 2,424만톤을 기록하였다.
 2) 인천공항의 2024년 1~2월 중 운항편수는 33,246편, 여객은 578.2만명으로 각각 전년동기대비 51.7%, 52.6% 증가하여 2023년 4/4분기(월평균 +67.6%, +90.3%)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3) 수 요

민간소비 포함

1/4분기 중 민간소비는 재화와 서비스 모두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소매판매액지수¹⁾²⁾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민간소비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권역별 계절조정(SA) 계열은 한국은행 자체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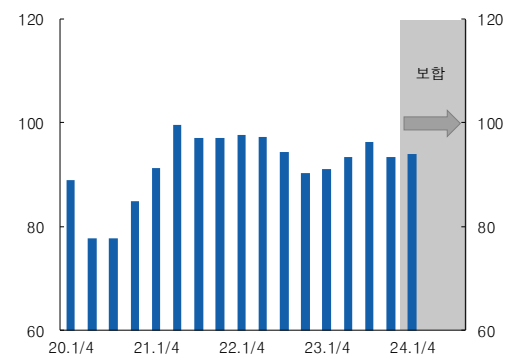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³⁾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재화 소비의 경우 내구재는 증가하였으나 준내구재와 비내구재는 감소하였다. 내구재는 자동차, 가전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나 준내구재는 의복 등이 크게 감소하였다. 비내구재는 연료를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서비스 소비의 경우 유통업, 의료서비스는 증가하였으나 레저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민간소비는 1/4분기에 비하여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 포함

1/4분기 중 설비투자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실행BSI¹⁾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2월 실적치

자료: 한국은행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은 AI 관련 프로젝트를 위한 반도체 설비투자가 증가한 반면, 식료품 설비투자는 기저효과로 인해 소폭 감소하였다. 그 외 철강, 기계·장비, 의약품 등의 설비투자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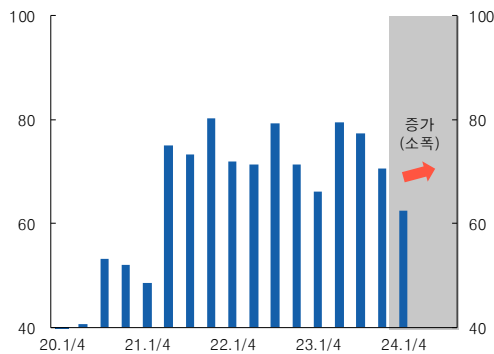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설비투자는 1/4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는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설비투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 석유화학·정제, 의약품 등의 설비투자 규모는 전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3) 인천지역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2024년 1~2월 평균 98.3으로 2023년 4/4분기 평균 95.0에 비해 3.3p 상승하였다.

건설투자 소폭 증가

1/4분기 중 건설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의 착공면적이 감소하였으나 인천지역은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착공면적⁴⁾이 증가하였으며, 건설업체수⁵⁾ 또한 전국적으로 감소한 것과 달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업황BSI¹⁾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1~2월 실적치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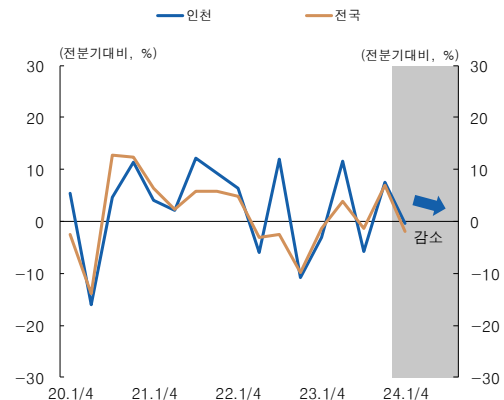
모니터링 결과 향후 건설투자는 1/4분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목⁶⁾이 감소하고 있으

나 건설수주액⁷⁾이 증가하고 주택 미분양 물량⁸⁾이 감소함에 따라 보험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감소

1/4분기 중 수출(일평균)⁹⁾은 2023년 4/4분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자동차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의약품, 철강판, 화장품 등의 수출은 증가하였다.

일평균 수출¹⁾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1/4분기 중 수출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1~2월 실적치(잠정)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반도체 수출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¹⁰⁾이 감소하였다. 자동차는 미국으로의 신차

- 4) 1월 중 반면 전국의 건물 착공면적(전년동기대비)은 3.5% 감소한 반면 인천지역은 206.2% 증가하였다. 인천의 경우 공종별로 보면 주거용(464.2%), 상업용(97.2%)이 증가하였다.
- 5) 부동산 PF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전국적으로 건설업체(종합공사업, 전문공사업, 전문건설업)수가 전년동기대비 0.6% 감소하였으나, 인천은 오히려 2.5%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6) 2024년 1월 중 인천지역 토목건설 건설수주액(전년동기대비)은 5.7% 감소하였다.
- 7) 2024년 1월 중 인천지역 건설수주액(전년동기대비)은 168.6% 증가하였다.
- 8) 2024년 1월 중 인천지역 미분양 주택은 3,094호로 2023년 1/4분기(월평균) 3,309.3호에 비해 감소하였다.(국토교통부)
- 9) 1~2월 중 인천지역 상위 5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농약 포함), 철강판, 화장품으로 일평균 수출 기준 2023년 4/4분기에 비 반도체(-5.8%), 자동차(-15.8%) 수출은 감소하였고, 의약품(23.1%) 철강판(5.3%), 화장품(9.5%)의 수출은 증가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 10) 1~2월 기준 인천 전체 반도체 수출 중 대중국 수출은 59.6%를 차지하며, 1~2월 중 인천지역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은 2023.4/4분기 대비 일평균 기준 9.3% 감소하였다.(한국무역협회)

수출¹¹⁾이 감소 전환하고, 중고차 수출¹²⁾ 또한 감소 전환하였다. 의약품은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해외 점유율을 견조하게 확대하면서 증가하였다. 철강¹³⁾의 경우에는 수출 판매단가의 상승으로 인해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은 대중국 수출¹⁴⁾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향후 수출은 1/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약품은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북미 및 유럽 시장 판매 확대 등으로 수출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수출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 반등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의 높은 실적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 석유화학·정제 등은 보험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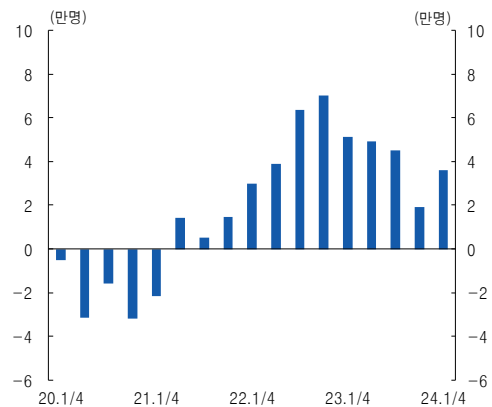
(4) 고용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

1~2월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3.6만명 증가하여 2023년 4/4분기(월평균 1.9만명 증가)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업종별 취업자수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1.9만명 → 2.8만명)는 증가폭이 확대되고 건설업(1.2만명 → 0.4만명)은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제조업(-0.7만명 → 1.0만명)과 전기·운수·통신·금융(-0.3만명 → 0.8만명)은 취업자수가 증가 전환한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0.0만명 → -1.2만명)은 감소 전환하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0.4만명 → 2.0만명)와 비임금근로자(1.5만명 → 1.6만명) 모두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취업자수 증가¹⁾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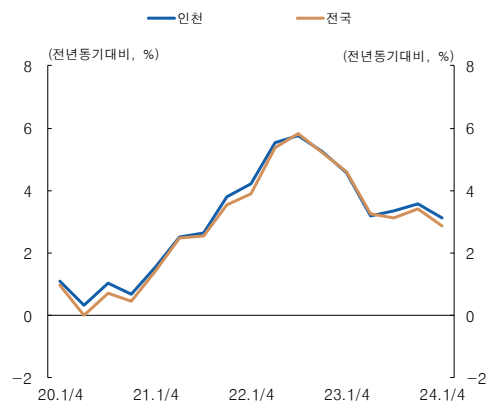
11) 1~2월 중 인천지역 신차의 미국 수출은 일평균 수출 기준 2023년 4/4분기 대비 19.8% 감소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12) 1~2월 중 인천지역 중고차의 수출은 일평균 수출 기준 2023년 4/4분기 대비 11.6% 감소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13) 1~2월 중 인천지역 철강판 수출중량은 2023년 4/4분기에 비해 3.7% 감소한 반면, 수출단가는 6.0% 증가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14) 1~2월 중 인천지역 화장품의 수출은 일평균 수출 기준 2023년 4/4분기 대비 9.5% 증가하였으며, 대중국 수출은 20.5% 증가하였다.(한국무역통계진흥원)

(5)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상승세 완화

1~2월 중 소비자물가(월평균)는 전년동기대비 3.1% 상승하여 2023년 4/4분기(3.6%)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이는 전기·가스·수도(8.9% → 5.9%)의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고 상품(4.0% → 3.3%) 및 서비스(3.2% → 2.7%)의 가격 상승폭이 전반적으로 축소된 데 기인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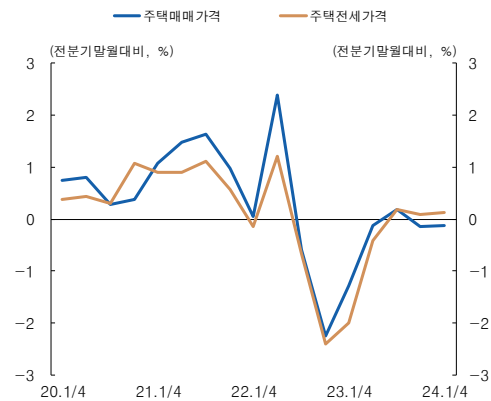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가격 하락세 둔화 및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1~2월 중 주택매매가격¹⁵⁾은 전분기말월 대비 0.26% 하락하면서 2023년 4/4분기(-0.45%)에 비하여 하락세가 둔화하였다. 주택전세가격¹⁶⁾은 전분기말월 대비 1~2월 중 0.25% 상승하며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지역별 주택매매가격은 혼조세를 보였다. 서구(0.04%)는 개발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로 상승하였으나, 부평구(-0.55%), 계양구(-0.37%), 남동구(-0.28%) 등은 하락하였다. 지역별 주택전세가격도 혼조세를 보였다. 서구(0.74%) 및 연수구(0.50%) 등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하였으나, 중구(-0.15%)는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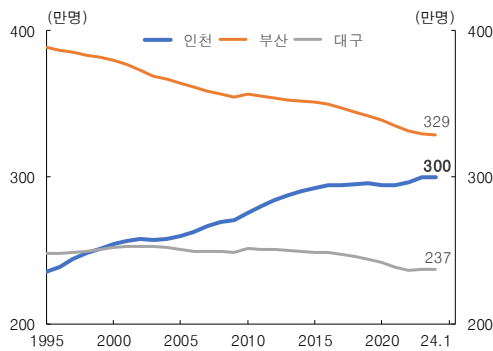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실계에 따라 2021.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중에서 월말로 변경
자료: 한국부동산원

15) 2월 중 인천지역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의 절댓값(0.26%)은 전국(0.29%)과 수도권(0.33%)에 비해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16) 2월 중 인천지역 주택전세가격 변동률의 절댓값(0.25%)은 전국(0.07%)보다는 크지만 수도권(0.26%)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인구 300만 돌파 및 행정체제 개편

인천광역시의 주민등록인구가 2024년 1월 29일 서울, 부산의 뒤를 이어 국내 도시 중 3번째로 3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인천의 인구는 광역시 출범 직전인 1994년 말 220만 명 대비 30년 만에 약 80만 명 증가했으며, 부산, 대구가 같은 기간 동안 인구 감소, 정체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인천시의 인구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인천·부산·대구 인구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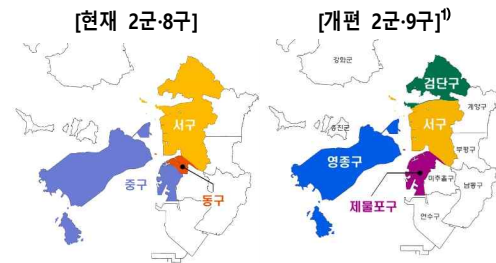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인천은 최근 30년간 서해 연안 매립지에 인천국제공항 건설, 경제자유구역(송도·영종·청라) 지정 등을 통해 수도권의 해안 도시라는 지리 환경적 이점을 도시의 신성장동력으로 바꾸었으며, 검단, 소래논현과 같은 신규 택지 개발은 도시의 인구 유입에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서구는 청라, 검단 등 대규모 택지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63만 명(2024년 1월)이 거주하는 거대 자치구로 성장하였다.¹⁷⁾ 연수구 또한 30년 전에는 갯벌이었던 송도 앞바다가 송도국제도시로 변모하여 현재는 39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인근

공유수면 매립·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해당 지역 인구 또한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인천은 이러한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지난 1월 9일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995년 광역시 출범 직후부터 유지했던 2군·8구 행정체제가 2026년 7월부터 2군·9구 체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인천 행정체제 개편



주: 1) 2026년 7월 예정
자료: 인천광역시

이번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검단구로 신설되는 검단지역의 경우 광역시 출범 직후 인천 서구로 편입되어 2007년 2기 신도시 지정 전후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해 현재는 23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성장했다. 중구 또한 과거에는 내륙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었으나 현재는 중구 인구의 70%가 넘는 12만 명이 영종도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지역은 생활·문화권이 소속 자치구 중심과 분리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 내 급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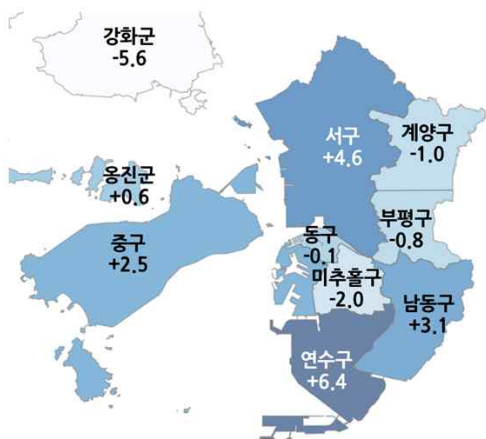
17) 1994년 말 27만 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인천 포함 전국 7개 광역시 자치구 인구 중 가장 많은 수치이다.

복지·민원 수요를 관련 시설이 따라가지 못했다. 특히 영종도에서 중구청에 방문하려면 영종대교나 인천대교와 같은 유료도로를 건너야 하는 등의 불편함도 존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서구 중 검단신도시가 포함된 아라뱃길 북측 지역은 검단구로 분구하며, 중구의 경우 영종도, 무의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를 분리하고, 개항 이후 인천의 역사를 간직한 내륙지역은 인근 동구와 통합해 제물포구로 신설된다.

다만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을 살펴보면 인천이 처한 군·구별 불균형 발전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인구 증가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인천 내 8개 자치구 중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중구, 서구, 연수구 뿐이었으며 나머지 5개 자치구는 모두 감소했다.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코로나19 이전인 2011-2019년 중 실질 GRDP 성장률은 연수구(+6.4%), 서구(+4.6%), 중구(+2.5%) 등이 다른 자치구 대비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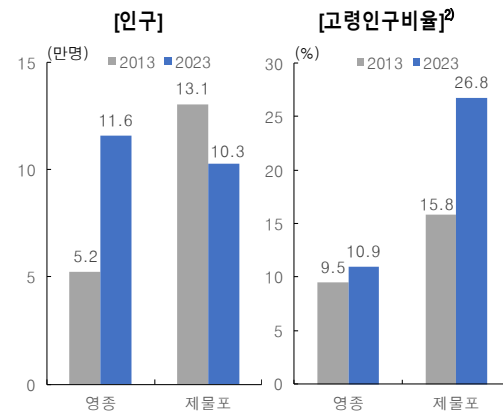
인천 시군구별 실질 GRDP 성장률¹⁾



주 : 1) 2011-19년중 연평균 (2020년 이후는 코로나19로 제외)
 자료: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지역내총생산」

이러한 측면에서 침체된 원도심 지역의 제물포구를 어떻게 다시 활성화할 것인가는 이번 행정체제 개편 후 인천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성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영종도 지역을 분리한 제물포구 지역은 2013년부터 10년간 인구가 21.4% 감소하며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여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더불어 동 기간 제물포구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은 10.9%p 상승한 26.8%를 기록했는데, 이는 영종구 지역의 10.9%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인천 원도심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¹⁾



주 : 1) 2026년 7월 예정 행정체제 기준
 2) 65세 이상 인구 비율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인천시는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제물포 르네상스'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내 구도심 도시재생 성공사례는 대부분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관광 기반 사례이며,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구도심 도시재생 성공사례는 아직 찾기 힘들다. 따라서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달성과 이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세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